



Kwon, O Mook

Jose Bonifacio 2673 (1406). Cap.Fed. Bs.As.
Argentina. Tel : 0054-11-3974-9038

E-Mail: pedrokwon@hanmail.net

침례교 해외 선교회: 02-2619-2202/4
후원 안내: 외환은행/ 예금주: 침례해외선교회

계좌번호: 181-04-01155-203

야전병원을 떠나 야전지휘관학교로

“선교지가 영전 전쟁터인줄은 알았는데 안식관에 와보니 여기는 야전병원이네요.” 안식관에 매주 화요일 모임에 방문하신 목사님과 동행한 한 집사님의 소감입니다. 그렇습니다 안식관은 정말 야전병원 같았습니다. 위장암 걸린 사모님, 유방암 수술한 사모님, 감상선암 걸린 대학생 아들을 둔 부모, 재생불능 빈혈 사모님, 탈진 선교사, 대상포진.....

날나리 환자로 1년의 야전병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저희는 야전지휘관학교(한국선교훈련원, GMTC)로 재 입학했습니다.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이곳에서 다시 선교사 훈련을 받습니다. 이곳은 저희가 선교지로 가기 전 훈련 받은 곳입니다. 공교롭게도 22년 전 사용하던 집에 다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. 이삿짐을 들고 이 집에 다시 들어왔을 때 “마치 세 살 때 살던 집에 어른이 되어 다시 온 것 같아” 라고 아내가 말했습니다. 정말 두 아이와 함께 살았던 집인가?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했던 어린 아이들의 얼굴이 스쳐지나 갑니다. 시은,



애나, 충석, 형준, 혜준, 고운..... 22년이 지난 지금 그 아이들은 어떤 모습일까?

두 주간 오리엔테이션과 자기소개, 삶 나누기 (Debriefing)를 했습니다. 과거 이 곳에서 훈련을 받고 선교지에 나갔다가 안식년에 다시 돌아와 받는 훈련이라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파란만장한 현장의 삶을 눈물과 웃음과 마음조림으로 들었습니다. 그 이야기들을 다 훑아낸다면 6개월 동안의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. 잊을

수 없는 사건, 가장 행복했던 경험, 가장 슬펐던 경험, 관계의 아픈 경험, 소통의 문제, 탈진했던 경험, 타문화에서 배운 것들 등 다양한 우리의 경험들은 서로에게 공감을 일으켰고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었고 서로를 보듬었습니다. 월요일은 실천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화-금요일은 GMTC에서 훈련 받습니다. 6개월간 두 가지 공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실천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아르헨티나에 신학대학원을 세우기 위함이고, GMTC에서 훈련 받는 것은 아르헨티나에 선교훈련원을 만들기 위함입니다. 잘 배우고 훈련하여 아르헨티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한국의 범일교회, 아르헨티나 중앙교회, 그리고 후원하는 모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.

주후 2015년 1월 29일 서울 목동에서 권오묵 이설희 선교사 드림